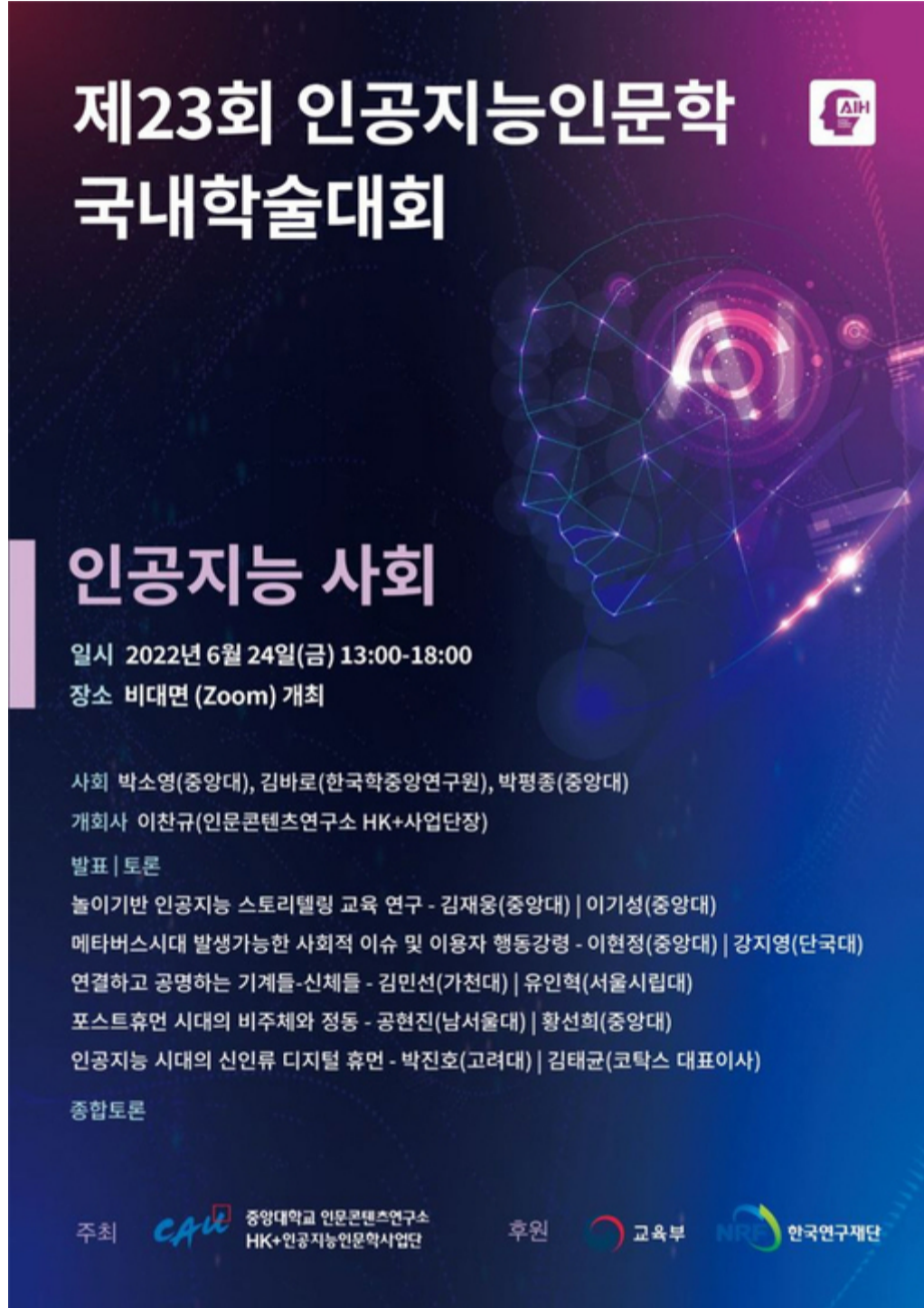


중앙대, '제23회 인공지능인문학 국내학술대회' 개최

메트로신문 신하은 기자 | 2022-06-21 12:55:39



'제23회 인공지능인문학 국내학술대회' 포스터. /중앙대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가 24일 '인공지능(AI) 사회'를 주제로 제23회 인공지능인문학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제23회 인공지능인문학 국내학술대회는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인문학 연구기관인 중앙대 HK+인문콘텐츠연구소가 주최하고,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는 행사다.

'인공지능 사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사회 전반에 가져온 변화와 앞으로 발생할 변화들이 조명될 예정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

학술대회는 이찬규 HK+인문콘텐츠연구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다. 1부는 놀이 기반 인공지능 스토리텔링 교육연구, 메타버스 시대 발생 가능한 사회적 이슈와 이용자 행동강령을 다룬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연결하고 공명하는 기계들-신체들, 포스트 휴먼 시대 시의 비주체와 정동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며 3부 이후에는 종합 토론을 통해 더욱 심도 깊은 논의들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를 주최한 중앙대 인문콘텐츠연구소는 포스트 휴먼 시대 인문학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인문학을 어젠다로 HK+(인문한국플러스)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찬규 HK+인문콘텐츠연구소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는 사회, 문화, 역사, 교육 등 인간사회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이 가져온 변화를 살피고, 인공지능의 미래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